

월요광장

2018 책의 해, 무슨 책 읽어?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오래 전 우리 동네에 ‘책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천여 권의 책을 그곳으로 보냈다. 읽고 싶은 책을 맘껏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없는 살림을 쪼개어 한 권 한 권 마련한, 어여쁜 나의 책들이었다. 책에 내려앉은 먼지만큼이나 쌓인 추억과 삶의 흔적들 때문에 책과 이별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의 서재를 함께 만들면서 책과 이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허기졌던 내 마음의 웅덩이가 채워졌음을 느꼈다. 책 채운 작은 집이 햇살과 바람을 불러들여 가족들도 좋아했으니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여백의 중요성을 배웠다. 내 것으로 다 채우지 않는 것, 누군가 참여할 여지를 남겨 두는 일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책문화공간의 한쪽 벽을 ‘우리 동네 책꽂이’로

분양한 것이다. 한 칸에 스무 권 정도의 책이 들어가는 서가를 동네 분들이 채워나갔다. 그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던 마을 사람들의 재발견이었다. 고양이를 사랑한 여중생의 책꽂이, 노무사로 일하는 동네 아저씨의 반전 매력 역사책들, 특단의 배우가 사랑한 희곡집들처럼 특별하고 소소한 책들로 공간이 빛났다.

“당신이 오늘 읽은 책을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 ‘그리스인 조르바’ 흥내를 내 가며 이분들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셔 그들이 사랑한 책 이야기를 들었다. “이 세상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 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작가 헤르만 헤세의 노래처럼 우리 동네는 그렇게 책으로 서로의 친구가 되었다.

정부가 2018년을 ‘책의 해’로 선포했다. 1993년 ‘책의 해’ 이후 25년 만이다. 그리고 함께 읽는 책의 해 표어로 ‘무슨 책 읽어?’ 라고 다정하게 묻는다. 책의 해가 따로 있던 않지만 그 상징 속엔 독서 생태계의 위기를 감지하고,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

25년 동안 대통령은 여섯 번 바뀌고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독서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은 59.5%로, 성인 독서율 조사 이래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성인 10명 가운데 4~5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것이다. 1994년 첫 조사 때는 86.8%였다고 하니 그 사이 독서 환경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가능할 수 있다.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이 2시간 20분인 반면 책을 읽는 시간은 20분도 안 된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날마다 이슈에 맞닿을 달고 항의하고 분노하는 동안 언어는 점점 거칠어지고 내면은 황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른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마샤 메데이로소)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인생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내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역대 최저 독서율과 함께 책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책의 해를 맞아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있다. ‘누구나 책, 어디나 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책의 해 행사들이 독자들에게 책 읽는 기쁨을 안겨 주

었으면 좋겠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묻고 답하는 사이 당신의 일상에 다시 책을 펼치는 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책 읽기는 선언이나 명령으로 이뤄질 수 없는 영역이고, 특별한 날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문화로 스며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책과 삶이 서로를 아름답게 빛아가는 생활 문화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책의 해’가 갖는 진짜 의미일 것이다.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종이책 자판 고객에게 소정의 할인 혜택을 준다니 그것도 누리 보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책 읽는 사진을 찍고 책에 대한 느낌 한 줄 말하는 ‘위드북(With Book) 캠페인’에 참여해 무료 음료권이 나 기념품도 받고, “무슨 책 읽어?” 해서 태그를 달고 지인들과 릴레이로 책 이야기를 이어 가는 것도 즐거울 것 같다. 책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나도 북튜버’, 캠핑의 즐거움과 책 읽기를 엮은 ‘북캠핑’, 독서 동아리들의 개성을 뽐내고 정보를 나누는 ‘북클럽 리그’, 찾아가는 이동 서점 ‘북트럭’, 전국심야 책방의 날, 책 읽는 가족 한마당, 직장에서 10분 책 읽기 등은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저 펼치는 것만으로 어디든 데려다 주는 건 책밖에 없지 않나?” 소설 속 문장처럼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세계 또한 크고 깊게 확장되기를 꿈꿔 본다.

법조칼럼



정 찬 옥
법무법인 맥 변호사

요즘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MeToo)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행에 해당하지는 여부도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중

신체 접촉이 없는 강제 추행죄의 성립

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강제 추행이라고 하면 만지고 더듬는 행동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접촉이라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강제 추행에 관해 흥미로운 해석을 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자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준에 전송받았던 신

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범죄(자수포)라고 볼 수 없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형태(간접 정범)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의 간접 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위 행위 모습을 ‘보여준’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유흥력을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이용해 스스로 추행하게 한 경우까지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 추행의 성립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대단하다.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은 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 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성추행, 성희롱 행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성 의식 내지 성 문화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社說

이용섭 페널티 광주시장 경선 최대 변수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광주시장 후보를 강기정·양행자·이용섭 예비후보 3명 간 경선으로 선출키로 한 가운데 이용섭 후보에 대한 ‘감산 10%’ 적용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이병훈 예비후보를 컷오프시킨 가운데 나머지 3인 간 경선을 통해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안 넘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관위는 최고위에서 의결한 대로 탈당 경력이 있는 이용섭 후보에 대해 경선에서 10% 감산키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만약 이 후보가 경선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더라도 50%의 10%인 5%를 감산해 45%만 경선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감산 10%’ 적용이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용섭 후보에 대한 페널티는 1차 경선과 결선투표에서도 똑같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특히 단일화에 성공한 강기정 후보는 ‘역전

의 발판’ 마련은 물론 선두 탈환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의 요청에 의해 복당’한 만큼 과거 탈당 경력에 따른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봤던 이용섭 후보 측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조만간 발표될 이용섭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사건 수사 결과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두 사람의 후보가 맞대결하는 결선투표에서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대로 탈당 경력이 있는 이용섭 후보에 대해 경선에서 10% 감산키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만약 이 후보가 경선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더라도 50%의 10%인 5%를 감산해 45%만 경선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감산 10%’ 적용이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단일화에 성공한 강기정 후보는 ‘역전의 발판’ 마련은 물론 선두 탈환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의 요청에 의해 복당’한 만큼 과거 탈당 경력에 따른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봤던 이용섭 후보 측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조만간 발표될 이용섭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사건 수사 결과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두 사람의 후보가 맞대결하는 결선투표에서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대로 탈당 경력이 있는 이용섭 후보에 대해 경선에서 10% 감산키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만약 이 후보가 경선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더라도 50%의 10%인 5%를 감산해 45%만 경선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감산 10%’ 적용이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단일화에 성공한 강기정 후보는 ‘역전

박근혜 정역 24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

현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돼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과 함께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 농단의 주범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단죄는 준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그즈저게(6일)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24년은 검찰의 구형(징역 30년)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국정 농단 관련자에 대한 형량으로는 가장 무거운 것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터 최 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문

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와 실망을 안기고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기에만 급급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정치 보복’ 등의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것도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그래서 한층 무겁게 다가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한 처벌은 촛불 혁명으로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의 심판이자 역사의 심판에 다름 아니다.

無 等 鼓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된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절대 군주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등에 업거나 총칼을 손에 들고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64)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중국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므로써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그가 사실상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3선의 푸틴(65)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 4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초강대국 집권을 예고했다. ‘현대판 차르의 귀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엔 이집트에서도 엘시시(64) 대통령이 9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현대판 파라오’로 등극했다. 군부가 권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정보기관 수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엘시시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구체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절대 권력이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

발흥하는 것을 보면,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천부 인권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신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 그 나라 국민은 절대 권력을 옹인하는가. 목숨을 위협하는 총칼이 무서워서일까?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통합·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한 여겨서 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절대 권력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일까?

실제로는 그들 나라에서도 항상 반대 세력은 있어 왔다. 다만 그 반대 세력이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주도 세력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는 ‘누가 권력을 잡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가 더 효과적으로 자본과 인프라를 조직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사회가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내 ‘자본과 인프라’의 조직화’가 해제되는 모습이다. 또한 강력한 숙청이 이어지면서 ‘유연한 협력’도 흐트러지는 분위기다. 북한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일까?

세력은 있어 왔다. 다만 그 반대 세력이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주도 세력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는 ‘누가 권력을 잡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가 더 효과적으로 자본과 인프라를 조직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사회가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내 ‘자본과 인프라’의 조직화’가 해제되는 모습이다. 또한 강력한 숙청이 이어지면서 ‘유연한 협력’도 흐트러지는 분위기다. 북한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일까?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기 고

만나고 싶은 백범

런인데 황해도 해주 출신인 김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광주·전남 지역에만 두 곳이다.

한 곳은 김구 선생과 광주 학동 ‘백화마을’의 유래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광주백범기념관’으로 지난 2015년 10월26일 문을 열었다. 1946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전재민(戰災民·전쟁으로 재산을 잃은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 자신의 정치 후원금을 모두 희사하였다. 희사금은 전재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고 김구 선생의 뜻대로 ‘백 구구가 화목하게 살라’고 ‘백화마을’이라 하였다. 광주 백화마을의 탄생은 가난한 동포에 대한 김구 선생의 따뜻한 동포애의 시작이었으며 전체 구호의 1탄이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선생은 1948년에 총 90만 원을 희사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에 전재민들을 위한 ‘김구주택’을 마련했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백범학원’과 ‘장암학원’을 개원하였다.

또 다른 한 곳은 보성의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인데, 보성과 김구 선생은 어떤 인연이 닿았을까?

1896년 3월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21살의 청년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로 변장한 일본인 쓰치마를 처단하였다. 이미 예감했겠지만 청년 김창수는 김구 선생이다.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 투옥되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지만 고종의 ‘특명’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1898년 3월 탈옥하여 정처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났는데, 함흥·무안과 목포·해남 관두·강진 고금도·완도·장흥·보성 득량·화순 동복·담양 등 에 잇을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말이다.

김구 선생은 특히 보성 득량면 쇠실마을에서 40여 일을 은신하였다. 쇠실마을은 안동김씨 집성촌인데 조선 중기까지는 백씨, 강씨 등이 거주하였다. 김자점의 역모로 동족인 안동김씨가 신분을 숨기 위해 나주 금천면에서 보성 득량면으로 이주하여 집성을 이루었는데 안동김씨인 김구 선생이 이곳을 알고 찾았던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탈옥한지 두 달여만에 숨은 곳이 쇠실 마을이어서 전만다행이다.

김구 선생은 김광연의 집에 머물며 뒷산 바위에 올라 체조도 하고, 바위 밑에 흐르는 물에 떡을 감았다고 한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와 시대상을 가르쳤는데, 선생이 떠난 후 이 마을에 문풍이 일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선생이 이곳을 떠날 때, 마을 일꾼들 몇 명이 ‘따라가면 밥이 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마을 뒷산에서 기다렸다는 일화다.

김구 선생은 1946년 9월22일 자신을 숨겨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쇠실마을을 다시 찾았다. 이때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술문을 세우고 길을 닦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였다. 선생의 긴 생애를 생각하면 이곳 보성 쇠실마을에서의 40여일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을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었던 김구 선생,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선생의 진심을 보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1990년에 ‘백범 김구 선생 은거 추모비’를, 2006년에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을 건립해 소중한 인연을 오늘도 기리고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